

식군전산세대의 ‘조국(homeland)’: 「공화국 찬가」에서 「조국찬가」로*

이 유 정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또 하나의 애국가’라고 불리는 「공화국 찬가 (Battle Hymn of the Republic)」가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 근대화 과정을 겪으며 한국의 「조국찬가」로 불리는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며, 이 곡이 정치, 사회, 국가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문화적 상황과 청중들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변용(transformation), 전용(appropriation), 혼용(hybridization)되어 새로운 의미의 텍스트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곡이 미국이라는 경계를 넘어 한국의 컨텍스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음악적 수행의 변화를 비교·문화적인 맥락에서 연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일본 식민지시기 태어나, 해방, 미군정, 전쟁, 분단, 산업화의 시간의 접경을 건너온 한국의 식군전산(植軍戰産)세대**에게 ‘조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이 논문은 음악이 문화, 사회, 역사적인 맥락, 특히 국가, 민족 정체성의 형성이나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의미와 그 역할을 모색하는 음악인류학 연구의 한 사례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공화국 찬가, 조국찬가, 조국, Homeland, 경계, 음악인류학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6A3A01079581).

** 식군전산(植軍戰産)세대라는 용어는 본 논문의 필자가, 식민지기 태어나 해방, 미군정, 전쟁, 분단, 산업화의 시간의 접경을 건너온 한국인 세대와 이 세대의 고유하고 특수한 시대적 경험과 이들의 정치, 사상, 문화적 성향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든 신조어이다.

I. 들어가며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 및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역 광장 옆에서 촛불집회에 맞서 태극기 집회를 시작 했다. 소위 ‘태극기 부대’로 알려진 집회 참가자들은 반대편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빨갱이’와 ‘중북 좌파’로 비난 하며, 태극기 집회의 ‘애국’의 정체성을 여러 버전의 「조국찬가」로 표현 하였는데, 특히 김동진 작곡의 「조국찬가」는 어느새 태극기 부대의 상징적인 곡이 되었다. 예를 들면, 집회 참가자들은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만만 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토낙원/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 평화/태극기 휘날리며 벽차게 노래 불러/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의 가사를 이 곡의 4분의 4 박자 리듬에 맞추어 부르며, 한 손에는 태극기를, 또 한 손에는 성조기를 흔들며 행진하였다.

그러나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평화 집회를 ‘구경’ 나온 많은 외국인들은 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고 있는지 의아해 했다. 이들 눈에 더 이상하게 보였던 것은, 태극기 부대가 미국의 제 2의 국가로 알려진 「공화국 찬가(Battle Hymn of the Republic)」를 대한민국의 또 다른 「조국찬가」로 부르며 행진할 때였다. “밝아오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희망의 찬 새 나라로 전진합시다/한 마음을 이어받은 배달의 민족 영원히 빛나리/영광 영광 나의 조국”으로 시작하는 다른 버전의 「조국찬가」는 사실 6.25 나라사랑 음악회나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행사에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노래이다. 이 곡은 미국 남북전쟁 시기 북군의 전승가가 1970년대 한국에서 「조국찬가」라는 제목으로 변안되어 불리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여러 보수 단체들의 집회나 모임, 정부나 군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에서 애창되어지는 곡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미국의 ‘또 하나의 애국가’라고 불리는 「공화국 찬가(Battle Hymn of the Republic)」가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조국찬가」로 불리는 일련의 과정을 추적해 보면서, 이 곡이 미국이라는 국경의 경계를 넘어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 안에서 새로운 청중들과 조우하

는 과정에서 변용(transformation), 전용(appropriation), 혼용(hybridization) 되어 새로운 의미의 텍스트로 탈바꿈되어지고, 다르지만 또 유사한 문화적 코드로 정착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공화국 찬가」와 한국의 「조국찬가」를 중심으로-이와 연관되는 다수의 '조국'과 내셔널리즘을 상징하는 국가(national anthem)에 준하는 곡, 그리고 관제 가요의 범주에 속하는 곡들과 함께-이들의 음악적 수행의 변화를 비교 문화적 맥락에서 들여다본다.

『음악인류학(*The Anthropology of Music*)』의 저자인 앨런 파커스트 메리암(Alan Parkhurst Merriam)은 음악의 문화, 사회적 요인, 즉 '문화로서의 음악의 연구', '문화 안에서의 음악의 연구'와 같은 문화인류학 연구방법론을 강조하며, 음악과 결부된 인간의 행동이나 관념에 대한 문제들까지 연구하고자 했다.¹⁾ 음악을 대상으로 인류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종족음악학(Ethnomusicology)이란 학문의 영역은 20세기 초 비교음악학(Comparative Musicology)이라는 형태로 시작했지만, 서양과 비서양이라는 이분법 사고에 기반을 둔 비교라는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음악과 문화의 역동적인 관계의 연구를 지향하며 종족음악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²⁾

종족음악학의 한 사례로서, 이 논문은 미국 남북전쟁 시기 진보진영의 노래로 시작된 「공화국 찬가」가 한국에서 극우보수집단의 정치색을 상징하는 노래로서 정착하게 된 과정을 살펴봄에, 이 곡이 문화, 사회, 역사적인 맥락, 특히 국가, 민족 정체성의 형성이나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의미와 그 역할을 모색해본다. 이 논문은 미국과 한국의 '조국찬가'라는 장르를 비교 연구하는 방법론을 택하고 있지만, 이 곡의 비교 자체, 즉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곡으로서의 미국과 한국의 상호텍스트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 된 목적은 아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조국찬가라는 장르의 형성과 변천의 과정을 통해 '조국'이란 말이 나타내는 모호하고 상상된 혹은 실

1) Alan P. Merriam, *The Anthropology of Music*.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 Bruno Nettl, *The Study of Ethnomusicology: Thirty-one Issues and Concept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5.

2) 앨런 P. 메리엄, 이기우 역, 『음악인류학』 I·II, 한국문화사, 2001.에서 역자는 종족음악학을 민족음악학이라 번역하고 있다.

재하는 경계가 음악을 통해 표현되고, 만들어지고, 사유되는 맥락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논문의 진행 순서는, 우선 미국의 「공화국 찬가」의 기원,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이 곡이 불리는 맥락을 살펴본 다음, 이 곡이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조국찬가」로 변형되어 불리는 과정을 알아본다.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는, 「조국찬가」가 두 개의 ‘조국’을 갖는 한반도에서 극우보수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노래로서, 소위 태극기부대의 ‘애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주제곡으로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해보며,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식군전산세대에게 ‘조국’ 혹은 ‘조국’의 경계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미국에서 조국(homeland) 의 의미와

「공화국 찬가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의 탄생

유럽의 군주제(monarchy)와 대립되어 공화국(republic)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한 미국의 길지 않은 역사에서, ‘조국’ ‘고국’ ‘모국’ 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는 ‘homeland’ 라는 어휘는 미국 시민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homeland’는 home과 land의 복합 명사 형태로, 어원사전에 따르면, 고대 영어에서 1660년대 울타리 쳐진 초원(enclosed pasture)을 의미하는 ‘hamland’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³⁾

2014년 9월 11일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사에 따르면, 2001년을 전후로 ‘조국’ 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미국 사회에서 급증했다고 한다. 2001년 이전 미국에서 ‘homeland’라는 단어는 미국인들이 주로 다른 민족, 즉 망명자, 이민자, 자신들의 ‘조국’에 대해 걱정하는 추방민, 난민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어휘였다. 미국인들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하나의 통합된 독립체로 가리킬 필요가 있을 때 통상 ‘아메리카’로

3) “homeland” Online Etymology Dictionary at <https://www.etymonline.com/search?q=homeland>

지칭해왔다는 말이다.⁴⁾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조국'이란 단어의 사용이 급증했다는 것은, 이 어휘가 미국 국가 위기의 시기, 즉 정치, 안보, 군사 분계선으로서의 경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통치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국'이란 단어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김없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2002년 뉴욕 타임즈에서는 9.11 테러 1주년 기념을 맞아 당시 새로운 유행이 되었던 한 용어, '조국의 안보(homeland security)'라는 쓰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에 언급되는 'homeland' 혹은 'homeland security'의 빈도수를 조사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세 번의 시기-세계2차대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1970년대 후반, 그리고 2001년 9.11 테러를 전후로 하는 시기-에 크게 이 단어 사용의 빈도수가 급증했다고 말한다.⁵⁾ 실제로 2차대전시기 미국에서는 집(home) 혹은 조국(homeland)이라는 개념이 전략적으로 미국 정부와 군사조직에 의해 홍보되고 장려되어 왔다. 즉 'home'이라는 개념이 타지의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 수많은 미군들의 일치된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사법으로 활용되어진 것이다.⁶⁾

위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homeland'라는 수사가 부각되는 배경에는 '전쟁'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이 그 축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2차대전이나 9.11 테러와 같은 전쟁 혹은 국가의 위기 상황이 고조된 시기에 어김없이 전면에 등장하는 곡이 있는데, 바로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전승가로 시작된 「공화국 찬가(Battle Hymn of the Republic)」(이후 「Battle Hymn」)이다. 남북전쟁 전후 19세기 중·후반 지리적 확장, 산업혁명, 대규모의 이민이 이루어지던 미국 사회에서는 통합된

4) Philip Bump, "How 'homeland' became part of our American lexicon," *Washington Post*, Sep 11, 2014.

5) Elizabeth Becker, "Washington Talk: Prickly Roots of 'Homeland Security,'" *New York Times*, Aug 31, 2002.

6) Yu Jung Lee, "Creating Home Away From Home in the Militarized Contact Zone: Korean Women's Performances of Imaginary Home at the US Military Clubs in South Korea, 1955-1964" in *Journal of Korean Studies* (2020년 3월 예정)

국가건설과 국가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익숙한 멜로디에 내셔널리즘을 북돋우는 가사가 덧입혀진 형태로 다수의 곡이 나타나게 된다. 「Battle Hymn」을 비롯하여 「The Star-Spangled Banner(lyrics 1814, music c.1773)」, 「My Country, 'Tis of Thee (lyrics 1831, music from 「God Save the Queen」)」, 「America the Beautiful(lyrics 1895, music 1883)」, 그리고 「God Bless America(1918)」와 같은 곡들 모두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 위의 여러 형태 조국찬가 중에서 「Battle Hymn」의 경우는 특히 20-21세기에 걸쳐 미국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나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와 같은 담론을 뒷받침해왔다. 전승가, 행진곡, 군가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이 곡은, 군행진곡의 특징인 드럼 운율과 트럼펫, 집합나팔(bugle call)소리를 기본 리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쟁의 비장함과 승리를 확신하는 가사를 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역사의 중요한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혹은 미국 내 특정 집단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조국의 노래’로서 불리는데 안성맞춤이었다.

미국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정서적 근거가 되고 미국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 곡이 기독교적 선악의 근원이 되는 개념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Battle Hymn」의 멜로디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1700년과 1800년대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종교부흥운동(The Great Awakening)의 노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곡은 1807년 미국 남부 기독교의 천막, 야외 전도 집회 (camp meeting)에서 「Say Brothers, Will You Meet Us」의 제목으로 불리던 찬송가였다. 그러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남북전쟁 즈음에는 북군들 사이에서 존 브라운(John Brown)이라는 순교한 노예제 폐지 운동가에게 바치는 찬가 「John Brown's Body」로 새롭게 각색되어 불리기 시작 했다. 즉, 기독교 집회에서 애창되어지던 「Say Brothers Will You Meet Us」라는 곡이 남북전쟁 시기에 북군의 한 부대의 행진곡으로 변형이 된 것이다.⁷⁾

7) Benjamin Soskis and John Stauffer, *Battle Hymn of the Republic : A Biography of the Song That Marches 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Caroline C. Koons, “The Rhetorical Legacy of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Southern Communication*

오늘날 불리는 곡과 가장 유사한 버전의 「Battle Hymn」은 미국 남북전쟁(1861-1865)이 시작되던 1861년에 북군의 전투 행진곡이었던 「John Brown's Body」에 보다 고양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사회운동가이자 선교사, 시인이었던 줄리아 워드 하우(Julia Ward Howe)에 의해 만들어진다. Howe는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의 워렌 요새 북군의 국기계양식에서 군인들이 「John Brown's Body」를 부르는 것을 듣게 된다. 그리고 이 곡에 기독교적 선악의 개념, 하느님의 군대, 악의 멸망, 영혼의 구원과 같은 새로운 가사를 붙이게 되는데, 이 곡이 바로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이라는 제목으로 1862년에 *The Atlantic Monthly* 에 실리면서 점차 알려지게 된다.

Battle Hymn of the Republic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He is trampling out the vintage where the grapes of wrath are stored
He hath loosed the fateful lightning of His terrible swift sword
His truth is marching on, His truth is marching on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His truth is marching on

I have seen Him in the watch fires of a hundred circling camps
They have builded Him an altar in the evening dews and damps
I can read His righteous sentence by the dim and flaring lamps
His day is marching on

I have read a fiery gospel, writ in burnished rows of steel:

Journal, 80:3, 2015, pp.211-229 ; Annie J. Randall, "A Censorship of Forgetting: Origins and Origin Myths of Battle Hymn of the Republic," in Annie Randall (ed.), *Music, Power an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5, pp.5-24 ; Sheryl Kaskowitz, *God Bless America: The Surprising History of an Iconic Song*,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As ye deal with my contemners, so with you my grace shall deal;
Let the Hero, born of woman, crush the serpent with his heel,
His truth is marching on

He has sounded forth the trumpet that shall never call retreat;
He is sifting out the hearts of men before his judgement-seat:
Oh! be swift, my soul, to answer Him! be jubilant, my feet!
Our God is marching on.

In the beauty of the lilies, Christ was born across the sea
With a glory in His bosom that transfigures you and me
As He died to make men holy, let us live to make men free
While God is marching on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His truth is marching on!

위의 가사에서 보여주듯이, 「Battle Hymn」에서는 종교적인 신념과 기독교적 어휘가 미국의 국가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가치로 사용되고 있다. Howe가 가사를 붙이던 19세기 중·후반 당시에는, 신약, 구약 성경에서 비롯되는 성경적인 이미지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9세기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종교부흥운동을 통해, 밀레니얼리즘(millennialism) 즉 종교, 사회, 정치적 단체나 운동, 교파에 의해 모든 것이 변화한 뒤 큰 사회적 변화가 올 것이라는 성경의 믿음들이 강화되었고, 독립혁명과 남북전쟁은 바로 그 혼란의 시작으로 상상되곤 하였다. 이 곡의 가사에서도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발목 아래 짓밟힌 뱀(crush the serpent with his heel)’, ‘울리는 트럼펫(sounded forth the trumpet)’과 같은 성경의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Battle Hymn」의 가사는 이사야서, 다니엘,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암시하고 있는 계시적이고 상징적인 인간 역사의 종말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남북 전쟁이라는 혼란 이후에 구세주가 다시 강림할 것이고 독실한 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구세주의 강림은 완벽한 평화의 천년왕국에 앞서 올 것이고, 그 결말에는 악의 힘과 선의 힘 사이에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기독교적 어휘가 미국의 통합된 국가정체성을 상징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북군의 군가이자 행진곡이었다는 사실에서 알려주듯이 이미 이 곡은 남북 갈등을 포함한 미국 사회의 여러 갈등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었다. 게다가 Howe의 곡에는, 통합과 반목이라는 갈등의 구조에 더하여 정의로움을 향한 열정과 악의 징벌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선과 악의 개념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곡에서, 하느님 군대의 승리는 북부군의 것이며, 신에게 승인받은 주체이자 신의 축복과 약속된 보상을 받게 되는 대상도 북군이다. 신의 적이자 악귀로 지칭되는 남부 군인들을 무찌르는 것에 신의 축복이라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곡이 남부인들에게 수용될 수 없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남북전쟁 이후에 「Battle Hymn」의 가사를 보다 통합된 국가의 시각으로 고치기 위한 시도, 남북전쟁의 적대감을 「Battle Hymn」의 곡과 분리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 곡이 지닌 남북갈등의 함의는 결국 1931년 미국의 국가가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이 아니라 「Star Spangled Banner」로 채택되어지는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점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곡은 미국에서 누군가는 정의로운 주체가 되고 다른 누군가는 무질려야 할 악의 근원이 되는 서사로서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처음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날 이 곡은 밀레니얼리즘에 기원한 회개의 시각으로, 서로 대립하는 기독교 종파 갈등을 극복하는 희망을 노래로, 격변하는 사회 안에서 국가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한 ‘위대한’ 미국의 노래로, 많은 극우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애창되고 있다. 더 나아가 남북전쟁의 해방(emancipation)의 수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곡은 미개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야 한다는 미국 보수 집단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데도 활용되어왔다. 다시 말하면, 「Battle Hymn」이라는 미국의 전승가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미국의 군사 개입이 이루어진 전쟁-대표적으로 쿠바, 필리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때 마다, 미국의 전쟁이 타협할 수 없는 성

스러운 전쟁(holy war)의 위치를 획득하는데 적절한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즉 미군이 ‘휘두르는 공포의 검(terrible, swift sword)’에 신의 섭리라는 명분이 주어지면서 「Battle Hymn」은 미국의 전쟁을 정의로운 (righteous) 전투로 만드는 서사이다.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Battle Hymn」에 녹아든 ‘국가의 승리주의와 징벌’,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멸망시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의 서사는 미국 우익 보수적 성향을 가진 내셔널리스트들의 정치적 성향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사회학자 Bart Bonikowski 와 Paul Dimaggio는 2016년 논문에서 미국의 내셔널리스트를 여러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열렬한 내셔널리스트(ardent nationalists)이다. 이들은 미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국가에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스스로를 국가적인 요소와 강하게 연관시킨다. 이들은 ‘진짜 미국(true American)’을 정의할 때, 반드시 기독교인이거나 미국에서 출생해야 하는 것을 필수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유대인, 무슬림, 불가지론자들, 귀화 시민권자들을 ‘진짜 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예로는 제한적인 내셔널리스트(restrictive nationalists)와 신조적 내셔널리스트(creedal nationalists)를 들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제한적 내셔널리스트들의 경우, 국가에 갖는 자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들이 정의하는 ‘진짜 미국인’은 놀랍게도 열렬한 내셔널리스트들 보다도 훨씬 배타적인 성향을 보인다. 신조적 내셔널리스트들의 경우 국가에 갖는 자부심의 수준은 중간 수준이지만, 이들은 ‘진짜 미국인’라고 규정하는 부류에서 비기독교인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권리를 제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적 교리에 충실한 부류이다.⁸⁾ 여기서 미국 내셔널리스트의 여러 층위를 길게 인용하는 이유는, 위의 연구가 미국의 국가 정체성, 내셔널리즘과 기독교적 신념 사이에 연관성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Battle Hymn」이 왜 매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보수 우익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진짜 미국인’라 여겨지는 이들을 대변하는 곡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다.

정리하면, 「Battle Hymn」은 미국의 오랜 군사 확장의 역사에서 미국 보

8) Bart Bonikowski and Paul DiMaggio, “Variety of American Popular National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1(5), 2016, pp.940-980.

수주의 정치인들이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미국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신념과 희생(sacrifice)의 가치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데에, 특히 대다수 백인계 보수주의자들과 내셔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미국 국가 정체성과 국가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2001년 9월 14일, 바로 3일전 발생했던 9.11 테러의 비극을 추모하는 추모식에서 「Battle Hymn」이 불러 지게 되는 배경과도 다르지 않다. 추모식에서는 다섯 명의 전직 대통령, 내각 구성원들, 상원, 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승리를 확신하며 미국 국민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왔던 「Battle Hymn」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9.11테러 이후 몇 주 동안 많은 미국인들은 「Battle Hymn」의 마지막 행에서 영감을 얻어, 자유(freedom)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미국인들과 군인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자유롭게 하기 위하여)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하며, 기독교적 언어로 테러리스트의 응징의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물론 일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종교인, 지식인 사이에서는 미국의 군사주의를 정당화하고 지나치게 찬양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또 추모식과 같은 국가의 행사에서 「Battle Hymn」을 제창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9.11 테러와 같이 국가가 위협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내셔널리스트이든 내셔널리스트가 아닌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미국의 운명을 약속하는 「Battle Hymn」은 여전히 내부에서든 외부의 시선에서 자신을 ‘진짜 미국인’으로 믿고 있는 또 그렇게 여겨지길 바라는 많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곡으로서 불리고 있다.

Ⅲ. 「공화국찬가」에서 대한민국의 「조국 찬가」로

「Battle Hymn」이란 진보적 성향의 노래가 미국의 전쟁의 정당성, 타협할 수 없는 조국의 안보를 위한 고귀한 희생, 반드시 무찔러 승리해야 할 악의 축과 같은 보수 세력의 일련의 반복되는 수사를 대변하는 곡으로 자리 잡아 왔다는 것을 볼 때, 이 곡이 한국에서 「조국찬가」라는 이름으로 변안되어

극우 보수 집단을 대변하는 노래가 된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 「Battle Hymn」이 한국에 전해지게 된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의 정치 외교적 이해 관계 아래서 남과 북이 나뉘고, 결국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만 국제연합의 승인과 선거관리 아래 38선 남쪽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새로운 경계선을 따라 새로운 ‘조국’이 만들어졌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간헐적으로나마 이어지던 인원, 물자, 우편의 교류는 끊어지고 철의 장막이 구축되었고 2년 뒤 한국전쟁이 발발, 60만 명의 연합군, 그 중에서 48만 명의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미국의 전승가 「Battle Hymn」은 한반도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⁹⁾

「Battle Hymn」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미군부대클럽의 무대의 거의 모든 패키지 쇼나 밴드의 공연에서 로컬 가수, 연주자들이 빼놓지 않고 공연하던 단골 레퍼토리였다. 당시 트럼펫연주로 밴드활동을 했던 서봉석이 회고하기를,

「Battle Hymn of the Republic」 자주 연주 했었죠. 군대행사 때는 물론이고, 일반 클럽에서도 패키지 쇼의 구성에 따라 순서 중간이나 마지막 등에 끼워 넣었어요. 아무래도 행진곡이다보니 클럽 분위기를 좀 살려주고, 군인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죠. 당시 [1950년대 말] 미군 클럽이 백인병사클럽, 흑인병사클럽이 공식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클럽 안에서 백인병사들끼리, 흑인병사들끼리 따로 떨어져서 모여 있기는 했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인종차별적인 것이 있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특정 곡을 연주할 때 서로를 농담처럼 조롱하는 그런 정도는 있었죠. 예를 들어 우리가 「Yankee Doodle」을 연주하면 한쪽에서 우~하고, 「Dixie's land」를 연주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 우~ 하는 정도요. 「Battle Hymn」을 연주할 때 야유를 하는 경우는 없었죠.¹⁰⁾

9) Soundtrack, *Battle Hymn* (1957) directed by Douglas Sirk and starred by Rock Hudson ;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Music You Will Remember,” accessed Jan 10, 2019 at https://kwva.us/?page=info_music ; Discography, *Battleground Korea: Songs and Sounds of America's Forgotten War*, 2018.

10) 서봉석과의 인터뷰 (2015년 12월)

서봉석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당시 미 8군 무대에서 활동했던 대부분의 가수, 밴드 연주자들은 이 곡을 가장 많이 공연했던 곡들 중 하나로 언급하며, 심지어 지금도 그 곡의 가사와 곡조를 정확히 부를 수 있을 정도로 「Battle Hymn」을 기억한다고 했다. 또 하나 서봉석의 증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전쟁 전후로 「Battle Hymn」이 가지고 있던 ‘북군’의 승전가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하여 적어도 군부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북군의 군가가 아닌, ‘미국’의 군가와 행진곡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미군클럽에서 연주되었던 「Battle Hymn」이 한국의 「조국찬가」로 변용되는 이유는 1960년대 미8군 가수와 연주자들이 일반 무대로 진출하게 되는 과정에서 미8군 무대에서 공연되었던 많은 곡들을 번안하여 내놓았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미8군 무대를 통해 유입된 상당수의 대중가요가 한국어로 번안되는데, 트윈폴리오로 활동했던 윤형주, 송창식이 「조국찬가」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불렀고, 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조영남은 1970년 자신의 앨범 첫 번째 곡으로 「조국찬가」를 수록하였다.¹¹⁾

조영남이 번안한 「조국찬가」의 경우 원곡인 「Battle Hymn」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적 정서가 가득 묻어나는데, 사실 「Battle Hymn」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미군을 통한 경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군부대의 군가, 행진곡의 형태와 더불어 이 곡이 한국에 전해지는 또 다른 경로는 찬송가이다. 외국의 경우 국가나 민요가 찬송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우리나라 찬송가의 경우도 이를 바탕으로 번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Battle Hymn」은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제목으로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다.¹²⁾

조영남의 「조국찬가」에도 원곡에서처럼 기독교적 신앙의 어휘들이 복합

11) “조영남 걸작선 제5집”이란 타이틀로 발매된 이 앨범에는 “Battle Hymn of the Republic”, “Cotton Field” “Brother Where ar you?” “Funny Familiar Forgotten Feeling” “Core’n Grato” 가 각각 “조국찬가” “형은 어디로” “알곳은 마음” “무정한 마음”으로 번안되어있다.

12) 러시아, 영국, 독일의 국가에서 각각 비롯된 ‘전능의 하느님’, ‘피난처 있으니’, ‘시온성과 같은 교회’, 미국 민요에서 시작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귀들과 싸울지라’ 등이 그 예이다.

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노래는 위에서 소개된 「Battle Hymn」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 곡이나 혹은 찬송가인 「마귀들과 싸울지라」의 가사와는 확연히 다르다. 즉 「Battle Hymn」을 번안했다기보다는 한국의 찬송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어적인 표현들, 예를 들어, ‘하느님의 영광’, ‘축복’, ‘사랑’, ‘충만’, ‘생명’과 같은 어휘들을 활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사를 만들었다.¹³⁾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Battle Hymn」을 굳이 「조국찬가」라는 이름으로 번안하게 된 경위이다. 이 「조국찬가」에는 위의 한국적 찬양가의 언어와 함께 국가(national anthem)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용어들-예를 들면 ‘밝아오는 아침 해’, ‘배달의 민족’, ‘무궁화 꽃’, ‘백의의 민족’-이 한국전쟁이나 혹은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상기시키는 ‘전우’, ‘전쟁터’와 같은 단어들과 함께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즉 기독교적 신앙이 1960-70년대 대한민국에서 민족주의, 자유주의의 가치와 혼합된 형태로 변용되고 있는 점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국찬가 (1971년, 조영남 가사 번안)

밝아오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저 희망에 찬 새나라로 전진 합시다
한 마음을 이어받은 배달의 민족
영원히 빛나리

영광 영광 나의 조국
영광 영광 나의 조국
영과 영광 나의 조국

13) 사실 이러한 기독교적 어휘의 사용은 조영남이 훗날 신학대에 진학하게 되는 것 과도 관련이 있을 성장 과정에서 연유한 듯 보인다. 그는 한 신문기사에서, “내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어머니는 이웃을 도와 사계절 내내 불도 때 주고 주기도 휘휘 저어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찬송가를 불렀다”고 회고하고 있는데, 아마도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배경이 한국적 찬송가의 언어를 어렵지 않게 「조국찬가」의 가사에 녹여내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짐작해볼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달, 제대로 된 유산을 물려주자>, 『국제신문』, 2015.5.3.

영원히 빛나리

이슬 맺힌 동산 위에 아침 해 뜨면
저 온누리에 무궁화 꽃 만발 하여라
한마음을 이어 받은 백의의 민족
영원히 빛나리

후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축복있으리
내가 태어난 이 땅에 축복이 있으리
많은 전쟁터에 죽어간 내 전우들에게
축복이 있으리
후렴

하느님의 영광으로 세워진 조국
온 세상이 사랑으로 충만 하도다
한 생명을 이어 받은 배달의 민족
영원히 빛나리
후렴¹⁴⁾

사실 조영남의 「조국찬가」가사와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의 식은 당시 전형적으로 발매되는 건전가요앨범의 모습을 따르고 있다. 1960~70년대에는 대중가수가 발표하는 음반 마지막에 군가나 건전가요를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했다.¹⁵⁾ 이 때의 대중가수의 앨범에는, 「조국찬가」 같은 곡들이 당시 “음반 끝자락에 ‘(건전가요)’란 꼬리말을 대동한 채” 수도 없이 실렸다고 한

14) 「마귀들과 싸울지라」 가사는 다음과 같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심판 날과 멸망의 날 네가 찼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 치는 무리들은 흥한 적군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15) 박건우, 『오선지 밖으로 튀어나온 이야기』, 솔바람, 1966.

다.¹⁶⁾ 이후 70년대 말에는 심지어 공연윤리위원회에서 건전가요 삽입의무제가 시행되면서 음반마다 건전가요 한 곡씩을 넣는 것이 강제되었다.

건전가요를 보급하게 된 배경은 1960년대 문공부가 가요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건전가요는 일제식민지 시기 전개된 일련의 정화운동에서 기원을 둘 수 있겠지만, 이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이다. 해방 이후에는 문화공보처를 중심으로 대중가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전가요의 제작과 보급에 힘쓰게 되는데, 1955년 이미 양명문, 김동진의 「조국찬가」가 나오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문공부에서 건전가요 보급을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71년에는 건전가요 및 표준 오락보급을 위해 건전가요 보급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적 보급을 위해 불건전음반의 제작을 단속하는 역할도 하였다.¹⁷⁾ 이 가요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건전음반을 제작, 배포하기도 하였다.¹⁸⁾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은 「광복30년의 노래」, 「국민의 노래」, 「조국찬가」, 「민족의 노래」, 「애국의노래」, 「승공의 노래」 등 14곡이다.¹⁹⁾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 생산되는 건전음반 이외에도, 정치적, 사회적 검열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음반업계에서도 가곡을 비롯해서 흘러간 옛 노래와 군가, 새마을 노래 등 건전가요의 출판이 부쩍 늘어났다. 우리 가곡이 대규모의 전집으로 나오는가 하면, 일제 강점기 독립군가집을 비롯해서 흘러간 노래 중 시국에 맞는 건전가요들이 산발적으로 리바이벌되었다.²⁰⁾ 연예가에 정화바람이 거세게 몰아친 이후 위축되어있는 음반 산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향 전환으로 볼 수도 있다. 1975년 10월 한국문화예술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통과된 곡 중에서 절반가량이 우리 가곡 아니면 흘러간 노래의 리바이벌이었다. 이를 테면, 6.25

16) <“70~80년대 강요된 건전가요의 대표 - 한국 팝의 사건·사고 60년 (71)> <건전가요와 관제가요-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한겨레』, 2006.10.22.

17) <검은 그림자 덮인 대중문화에 새 빛 출판, 방송에 움트는 정화>, 『경향신문』, 1965.9.20.

18) <가요와 민요를 보급 : 서울중앙방송국서 국민정서함양위해>, 『경향신문』, 1963.1.19.

19) <애국가요모음 배포 KBS, 민방등에>, 『경향신문』, 1975.11.21.

20) <퇴폐 오명 씻자 정화의 열풍>, 『경향신문』, 1975.10.7.

전쟁 당시의 노래로 「임계신 전선」, 「전선 야곡」, 「아내의 노래」와 이후 월남전 군인들을 상징했던 「빨간 마후라」, 「육군 김일병」 같은 전쟁의 노래가 주축을 이루었다.²¹⁾ 조영남의 『조국찬가』 앨범도 이런 일련의 가요정화사업의 흐름 속에서 「조국찬가」를 포함한 번안곡 5곡과, 민요 5곡으로 구성된 건전가요 앨범으로 제작된 것이며, 당시 「조국찬가」라는 이름으로 군가, 찬송가, 건전가요, 전쟁가요의 특색이 혼용된 복합적 장르의 곡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²²⁾

그렇다면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며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드는 소위 태극기부대는 1960-70년대에 불리던 이 「조국찬가」를 왜 지금 다시 부르고 있는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태극기부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식군전산세대에게 조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homeland'에 견줄 수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조국' '모국' '고국' 과 같은 어휘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조국(祖國)'은 ①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 자기의 국적이 속하여 있는 나라, ②민족이나 국토의 일부가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합쳐졌을 때에 그 본디의 나라, '모국(母國)'은 ①자기가 태어난 나라 흔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가리킬 때에), ②따로 떨어져 나간 나라에서 그 본국을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고국(故國)'의 경우 ①주로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조상 때부터 살던 나라를 이르는 말로 설명되어져 있다.²³⁾ 언어학자 다나가 가쓰히코(田中克彦)는 '조국'은 조상의 출신지, '모국'은 자신이 실제로 국민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국가, '고국'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²⁴⁾ 어쨌든 위의 정의에 따르면 조국, 모국, 고국이란 어휘가 갖

21) <탈바꿈하는 레코드업계 건전가요 출판 붐> 『경향신문』, 1975.11.17.

22)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 정치-1950년대 번역 정책과 번역문학장」, 『대동문화연구』에서 박지영은 1950년대 단정수립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통하여 국가권력이 반공주의로 무장하고 국민국가의 건설에 박차를 가했던 시기에, 번역 정책이 자유주의의 중주국이라는 환타지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 정책으로 이용되는 과정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의 확장과 연장선에서 조국찬가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4) 서경식·임성보·이규수 역, 『난민과 국민사이』, 돌베개, 2006, 181쪽. 재인용; 조은애, 「상상의 조국, 교착된 조선어」, 『상허학보』 44호, 2015, 139-187쪽.

는 공통된 뜻은 조상 혹은 부모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나라, 즉 나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고 나의 물리적, 정신적 뿌리가 있는 곳을 말한다.²⁵⁾

그러나 1960년대에서 70년대 냉전과 산업화시기의 한국사회에서 ‘조국’이라는 수사는 통상 사용되는 위의 ‘조국’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다. 이 시기 발매되는 건전가요의 제목과 가사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어휘 중의 하나는 바로 ‘조국’이다. 이 때 만들어진 건전가요 중 「조국찬가」를 비롯해 「민족의 노래」, 「애국의 노래」, 「유신찬가」, 「새마을노래」, 「좋아졌네」, 「나의조국」, 「새마을아가씨」, 「월남전노래」 등에서 ‘조국’이란 가사는 어김없이 등장한다. 특히 1960년대 공보부가 제작한 「맹호들은 간다」, 「우리는 청용이다」의 두 곡이 실린 건전가요 앨범에는 “자유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그 이름 맹호부대 맹호부대 용사들아/조국의 명예 걸고 청룡은 간다”와 같은 가사가 실려 있다. 꼭 건전가요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이 시기 일반 대중가수의 앨범에서도 ‘조국’을 이란 어휘는 시대의 유행어인 듯 앨범의 제목에서든 곡의 제목에서든 어딘가에 하나씩 꼭 끼워져 있는 ‘단골 메뉴’였다. 비단 신문기사뿐이지만, 1960-70년대의 신문에서 ‘조국’이란 단어는 ‘조국수호’, ‘조국재건’, ‘조국영광’, ‘조국건설’, ‘조국근대화’, ‘조국명예’, ‘조국증흥’과 같은 어휘들로 하루에도 수없이 등장한다.²⁶⁾ 문승숙이 ‘군사화된 근대성(militarized modernity)’의 시기로 정의하는 이 때 ‘조국’이라는 말은 정부가 ‘민족적 자긍심’과 ‘주체성 확립’, ‘국가안보수호’를 위한 명분으로 강력한 사회 통제와 국민의 동원을 위하여 활용한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지극히 프로파간다적인 용어였다.

따라서 이 당시 건전가요의 가사, 예를 들면 “조국의 명예 위해 무찌르자 붉은 무리”와 같은 가사에서 보여주듯이,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조국’이란

25) 김여경, 「조국이란 무엇인가 : 귀국 1.5세 재일탈북자의 구술사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8호 1집, 2017, 95-135쪽. 이 논문에서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며, 재일조선인의 경우 조국, 고국, 모국이 분열된 존재로 정의하는 서경석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고국과 조국의 가치가 대립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26) <조국재건을 다시 기약> 『동아일보』, 1962.3.2. ; <조국영광위해 정진을>, 『경향신문』, 1974.7.15. ; <조국건설에 선도를>, 『매일경제』, 1970.2.26. ; <박대통령 치사 조국근대화작업에 박차>, 『동아일보』, 1970.3.2. ; <조국재건역군되길>, 『동아일보』, 1961.11.22. ; <조국명예걸고 임무완수>, 『동아일보』 1968.12.30.

말에서 상상되는 그리고 실재하는 경계는 공산 체제로부터 수호해야 하고, 전쟁으로부터 재건해내어 변명을 이루어야하는 휴전선 남쪽인 것이다. 이 선미는 이은상의 1960년대 『피 어린 육백리』란 기행문의 서사를 분석하며, 이 글이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유진영을 중심으로 국가의 관념을 재배치”한다고 서술한다.²⁷⁾ 마찬가지로 이 당시 ‘조국’이 나타내는 심상지리는 한반도 휴전선의 경계를 따라 그 영역이 축소되어 지거나, 혹은 전 세계 반공전선에 따라 구획되는 자유세계로 그 지리적 영역이 확장되는 국경인식 안에서 새롭게 상상되고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IV. 나가며

음악이 소리 자체로 정치색을 띄거나 경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곡의 가사,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와, 다양한 맥락을 통해 변성, 변화, 재생하는 노래 내·외적인 요소들의 힘에 의해서 그 뜻을 만들어간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남북전쟁 시기 진보진영인 북군의 노래 「Battle Hymn」이 미국 보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노래로 정착하게 되는 과정과 한국전쟁 시기에 한반도에 들어와 대한민국의 근대화, 국가건설의 과정에서 ‘조국찬가’로 변용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한국 극우 보수단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노래로 정착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시 「Battle Hymn」으로 돌아가면, 본래 이 곡이 노래하는 인간의 ‘구원’, ‘자유’, ‘해방’, ‘정의’의 서사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한반도에도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해방’의 서사는 냉전 체제 아래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자유’의 가치를 드러내는 「조국찬가」로 정착되어 공산진영이라는 악의 축을 상대로 ‘자유 평화’, ‘자유 대한’을 상징하는 노래로 다시 무장되었다. 식군전산세대는 대부분 실제로 ‘조국’이라는 담론에 익숙한 삶

27) 이선미, 「조국의 지리적 경계로서의 휴전선과 냉전의 심상지리 : 이은상의 “피 어린 육백리”와 냉전의 감각」, 『배달말학회』 95집, 2016, 165-191쪽 ; 박광현, 「밀항’의 상상력과 지도 위의 심상 ‘조국’ : 1963년 김달수의 소설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42집, 2017, 277-299쪽.

을 살았던 세대이다. 이 세대는 ‘조국’ 잃은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미군정기, 한국전쟁, 월남전을 경험하고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어낸 주역으로서 ‘자유대한’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며 살아온 ‘애국주의자’, ‘내셔널리스트’들이다.²⁸⁾ 타협할 수 없는 선악의 구도 안에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선’이라고 굳게 믿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조국’은 ‘자유대한’이기에 이들이 부르는 ‘조국찬가’는 친북 좌파로 규정하는 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반정부의 노래이고 이들의 ‘조국’을 위협하는 반 공산진영, 반 김정문의 노래이다. 하지만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조국찬가’와 같은 노래는 극우 테러리스트들의 노래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조국’이라는 말은 ‘아버지’들의 고리타분한 언어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이미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큰 반항을 일으킬 수 없는 구식의 노래가 되어버린 ‘조국찬가’는 스스로 상실과 좌절을 치유해야 하는 부모들만의 메아리 없는 노래가 되어버린 것이다.

「Battle Hymn」이 변천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음악이 특정한 의미와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은 그 곡을 연주하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여된다. 음악, 소리 자체가 경계를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는 흔히 스펙트럼의 양 가장자리에 시작되는 대립적인 개념들 -미국적인 것과 미국적이지 않은 것, 한국적인 것과 한국적이지 않은 것, 전통적인 것과 전통적이지 않은 것, 민족적인 것과 민족적이지 않은 것,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개념들 -이 음악, 소리에 담겨진다고 믿는다. 「공화국 찬가」 혹은 「조국찬가」에서 상상되어지는 ‘조국’이라는 경계는 음악에 담겨진 관념, 이데올로기의 경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생성되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의 경계는 특정한 세대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며 각기 다른 상상의 혹은 실제로 존재하는 지리적, 사회적 경계들을 그리고 있다.

28) 김건우의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근원』(너티나무책방, 2017)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 현대사의 근대전환기를 이룩한 1970년대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을 주도한 이들과 민주화 운동의 주력들이 모두 이념적으로는 하나의 뿌리라는 점을 수많은 문헌을 근거로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은 ‘조국 찬가’라는 음악과 문화의 관계성 탐색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우익보수집단에 관한 연구의 참조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우익집단의 근원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저자의 향후 식군전산세대 관련한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Battle Hymn (1957) directed by Douglas Sirk and starred by Rock Hudson
; *Battleground Korea: Songs and Sounds of America's Forgotten War*,
2018.

조영남 걸작선 제5집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2. 논문과 단행본

김건우의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근원』, 느티나무
책방, 2017.

김여경, 「조국이란 무엇인가 : 귀국 1.5세 재일탈북자의 구술사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8호 1집, 2017, 95-135쪽.

박건우, 『오선지 밖으로 튀어나온 이야기』, 솔바람, 1996.

박광현, 「밀항」의 상상력과 지도 위의 심상 ‘조국’ : 1963년 김달수의 소설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42집, 2017, 277-299쪽.

박지영,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 정치-1950년대 번역 정책과 번역
문학장」, 『대동문화연구』 제71집, 2010, 477-514쪽.

서경식, 임성보, 이규수 역, 『난민과 국민사이』, 돌베개, 2006.

조은애, 「상상의 조국, 교착된 조선어」, 『상허학보』 44호, 2015, 139-187쪽.

이선미, 「조국의 지리적 경계로서의 휴전선과 냉전의 심상지리 : 이은상의
“피 어린 육백리”와 냉전의 감각」, 『배달말학회』 95집, 2016, 196-191쪽.

앨런 P. 메리엄, 이기우 역, 『음악인류학』 I·II, 한국문화사, 2001.

Alan P. Merriam, *The Anthropology of Music*.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Annie J. Randall, “A Censorship of Forgetting: Origins and Origin Myths of
Battle Hymn of the Republic,” in Annie Randall (ed.), *Music, Power
an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5).

Bart Bonikowski and Paul DiMaggio, “Variety of American Popular Nationalism,”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1(5), 2016, pp.940-980.
- Benjamin Soskis and John Stauffer, *Battle Hymn of the Republic : A Biography of the Song That Marches 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Bruno Nettl, *The Study of Ethnomusicology: Thirty-one Issues and Concept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5.
- Caroline C. Koons, "The Rhetorical Legacy of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80:3, 2015, pp.211-229.
- Elizabeth Becker, "Washington Talk: Prickly Roots of 'Homeland Security,'" *New York Times*, Aug 31, 2002.
- Philip Bump, "How 'homeland' became part of our American lexicon," *Washington Post*, Sep 11, 2014.
- Sheryl Kaskowitz, *God Bless America: The Surprising History of an Iconic Song*,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Yu Jung Lee, "Creating Home Away From Home in the Militarized Contact Zone: Korean Women's Performances of Imaginary Home at the US Military Clubs in South Korea, 1955-1964" in *Journal of Korean Studies* (2020년 3월 게재예정)

3. 웹자료

-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Music You Will Remember," accessed Mar 10, 2019 at https://kwva.us/?page=info_music
- "homeland" Online Etymology Dictionary accessed Mar 13, 2019. at <https://www.etymonline.com/search?q=homeland>

❖ ABSTRACT

Borders of the Homeland: From America's "Battle Hymn of the Republic" to "Homeland Hymn" of the Republic of Korea

Lee, Yu Jung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formation and adaption of the song "Battle Hymn of the Republic" known as the second American national anthem, as a way to assess how the act of music-making, is closely linked to nation-building in Korea. The notion and symbolism of the home/homeland is imagined, constructed, and performed through music. A closer look at this specific song reveals the influential role of music, in shaping a hegemonic notion of the homeland and national identity, by drawing a clear boundary with the oth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new dimensions for consideration in the analytic discourse of the homeland and music, by tracing the transformation and adaptation of the song through ethnomusicological research. The connection between music and society, and the meaning of music in a society, have been a central focus of ethnomusicological studies, as well as investigation relative to national identity. Drawing on this scholarship, this paper explores how "Battle Hymn of the Republic" has been positioned as an ideologically-ridden song in the process of Korean modernization, since the notion of the homeland and home emerged as significant symbols of Korea since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Key Words : "Battle Hymn of the Republic", Homeland, Ethnomusicology,
Korean national hymn, *Chogukch'an'ga*

■ 논문접수일 : 2019. 05. 10

■ 심사완료일 : 2019. 06. 01

■ 게재확정일 : 2019. 06. 04

